

# 민주노총(준)의 사회개혁투쟁 중간평가

김 태 현(전국민주노총준비위 정책담당 집행위원)

95년 임·단협투쟁은 민주노총(준)의 발족과 더불어 처음 맞이하는 투쟁으로서 안팎으로 관심의 초점이 되었으며, 특히 전체 노동조합운동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제기한 사회개혁투쟁은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정부에서는 “명백히 정치투쟁에 해당하므로 이와 관련된 쟁의는 모두 불법으로 간주,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는가 하면 일부 사람들은 사회개혁투쟁이 노동운동권 일부의 사민주의적 내지 시민운동적 편향(?)을 드러냈다는 평가절하를 하기도 했다.

그리고 막바지 투쟁의 과정에서 몇 개 단위노조들에서 사회개혁요구를 요구안에서 삭제한 것을 가지고 정부와 제도언론에서는 민주노총(준)의 무리한 방침이 단위 사업장에서 관철되지 않은 증거라고 즐거워하기도 하였으며 민주노총(준)에서는 이를 반박하면서 원래 목표를 초과 달성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비록 마무리가 되지는 않았지만 민주노총(준) 차원에서 전개한 사회개혁투쟁에 대해서 그 동안의 경과를 정리하고 간단한 평가를 나름대로 내려보고자 한다.

## 1. 사회개혁 투쟁을 제기하게 된 배경

그 동안 민주노조진영에서는 ‘상반기 임투, 하반기 노개투’를 연례적으로 전개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노동법 개정 이외에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의 사회보장 제도 개선, 재벌 경제력 집중 규제, 물가폭등 반대, 주택문제, 교육개혁, 언론민주화 등 다양한 사회개혁 투쟁들을 각 조직별로 전개해 왔다. 사회개혁투쟁은 임·단투와 더불어 노동

조합운동의 주요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우리 민주노조진영은 당면한 노동조건 개선투쟁, 노동운동단압분쇄 투쟁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조건과 기업별 노조라는 한계로 전체적으로 사회개혁투쟁에 집중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외국 노동조합의 경험, 특히 이태리의 경우를 본다면 60년대 말에 “공장에서 사회로”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현장의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전국적 대중투쟁으로 발전시키고, 연금제도 개선, 의료서비스 개혁 등의 요구를 내걸고 파업까지 전개하여, 노동자의 생활을 개선하고 국민적 지지를 획득하기도 하였다는 점은 우리 노동조합운동에도 중요한 교훈을 준다고 하겠다. 남아공의 민주노총인 코사투(COSATU)도 수백만의 노동자가 동참한 부가가치세 도입 반대 총파업을 전개하여 정부의 방침을 일정 정도 좌절시키고 노동조합의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이후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요한 동력으로 떠올랐다.

따라서 사회개혁투쟁은 기업별 노조의 임·단투에 매달려 있던 우리의 민주노조운동을 제도개선, 정치 정책적 차원으로 적극 끌어올리고, 노동조합운동의 전국적 단결과 구심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고리로서 작용하는 것이며, 또한 ① 노동자와 국민 생활을 개선한다 ② 사회를 민주적으로 개혁한다 ③ 노동자의 단결과 정치의식을 강화한다 ④ 노동조합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고 국민적 지지를 얻어낸다는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준)은 올해 임·단투를 ‘임·단투, 사회개혁 투쟁’으로 명명하고 임단투와 사회개혁 투쟁을 적극 결합하기로 하였으며 그 목표는 “노동자가 사회개혁의 주체로 앞장설 수 있도록 조합원 대중의 의식을 높이고 사회개혁 관련 제도 개선을 쟁취하여 전체 국민의 생활을 용호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문제의식들은 94년 말에서 95년 초까지 계속된 방침 토론에서 거의 이의 없이 수용되었다는 점, 특히 대공장 노조들도 이러한 문제의식들을 많이 제기하였다는 점에서 일부 사람들의 문제제기와 달리 실천적인 차원에서는 사회개혁투쟁의 정당성을 확보하였다고 할 수 있겠다.

오히려 문제는 어떤 요구에 집중하고 어떠한 수준에서 투쟁을 전개할 것인가에 대한 전술적 고민이었다. 즉 다양한 사회개혁 요구 -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의 사회보장제도 개선, 토지·주택·교육·교통·언론·세제 개혁, 재벌 경제력 집중 규제, 물가 안정 등 다양한 요구들 속에서 어떠한 요구를 전체 차원에서 설정하고, 당면한 임·단투 속에서 어느 정도까지 사회개혁투쟁을 집중할 수 있을까에 주요한 고민과 토론이 있었다.

다양한 논란 속에서 민주노총(준)은 최우선적으로 힘을 집중해야 할 사회개혁 요구와 해당 산업, 지역, 그룹조직이 집중해야 할 과제를 나누고 전체 차원에서 집중해야

할 과제로는 ① 전국민적인 사안으로 ② 투쟁주체와 동력이 담보될 수 있으며 ③ 생활화 내지 생활 가능성이 있는 것 등을 고려하여 △ 의료보험 통합 일원화와 보험 적용 확대 △ 국민연금의 민주적 관리 운영 △ 세제 및 재정개혁 △ 재벌 경제력 집중 규제 △ 교육 개혁 등 5대 과제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개혁 요구를 대중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 단위 노조의 임·단협 교섭에서 사회개혁 요구를 제시할 것을 권장사항(의무사항이 아님)으로 제기하였다. 사회개혁요구를 임·단협 교섭시 요구로서 제출하기로 한 것은 사회개혁 요구가 원칙적으로 대정부 정치투쟁이지만 이를 조합원 자신의 요구로 각인시키고 법개정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사용자와의 교섭에서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에서 제출된 것으로 94년 병원노련의 의료제도 개선투쟁의 성과와 교훈을 토대로 한 것이었다.

## 2. 사회개혁 투쟁의 진행경과

그러나 이렇게 제기된 사회개혁투쟁은 단위 현장에서 힘차게 진행되지는 못하였다. 이는 특히 사회개혁 요구가 처음으로 제기되면서 그 내용에 대한 교육, 선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히 중간 단위인 산업, 지역, 그룹조직의 간부부터 내용에 대한 공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노총(준)은 사회개혁투쟁에 대한 해설과 교안 등을 수록한 『사회개혁투쟁 실천 교육지침』을 발간하여 각급 단위에서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그리고 당면한 실천지침으로;

- 1) 전 노조는 의료보험과 교육개혁의 단협개선요구를 제출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선전, 교육을 강화한다
- 2) 사회개혁 요구별로 주력 조직을 설정하고 가능한 모범을 적극 창출한다
- 3) 각 조직별로 사회개혁요구중 1개는 반드시 결합하고 단위 노조에서는 하나 이상의 제도 개선 요구를 반드시 제출하자
- 4) 교육, 홍보를 강화하고 민주노총(준)의 투쟁과 사업에 적극 결합한다는 방침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임투 집행체임자회의에서 공유 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각급 단위에서는 나름대로 사회개혁 요구안을 임·단투 교섭에서 제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

였다.

민주노총(준)은 이와 더불어 4월부터 매월 한 차례씩 전국 동시다발 가두선전을 조직하여 노동조합의 사회개혁투쟁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하는 등 사회개혁을 위한 전국적 공동 캠페인을 조직하였다. 이와 아울러 사회개혁 대자보 시리즈를 차례별로 조합원 홍보와 대국민 홍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정책적으로는 세계개혁,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혁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여론을 환기시키는 효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결과로 권장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조들이 이에 호응하여 이러한 사회개혁 요구를 하나라도 요구한 노동조합은 104개 노조로 5월 말 현재 민주노총(준) 산하 요구안 확정 노조 699개 가운데 14.9%의 노동조합이 사회개혁요구를 내놓고 회사쪽과 협상을 벌였다. 이 중에서 병원노련 산하 노조가 69개로 전체 요구 노조의 절반이 넘으며 건설노련도 연맹에 교섭권을 위임한 16개 노조들이 의료보험 통합일원화와 보험 적용 확대를 요구하였다. 나아가 자동차총련과 기총련 산하의 기아자동차, 쌍용중공업, 마창지역의 효성중공업, 통일중공업, 그리고 현총련의 경우 현대중공업과 현대정공 노조가 제도개선 요구를 제출하였다. 요구안에 있어서는 의료보험법 개정을 모든 노조들이 제기하였으며 국민연금의 민주적 관리 운영이 72개 노조로 그 다음으로 많다. 한편 자동차총련 산하의 노조들은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을 공동으로 요구함으로써 대기업노동자와 하청노동자간의 통일, 단결을 위해 투쟁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함께 요구안을 타결한 노조들도 생겨나 병원노련 산하조직 가운데 공동교섭을 진행 중인 인천 부천 지역, 서울지역 중소 병원에서는 제도개선에 대해서 사용자 측과 합의를 이루어 내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기아그룹노조총연합의 서해공업노동조합은 사용자 측과 국회 공동 청원을 하겠다는 합의를 이끌어내었다.

이러한 사회개혁투쟁은 처음으로 임단투와 결합되어 민주노총 차원에서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의 초점이 되면서 노동조합운동의 새로운 영역을 확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자본과 정권은 민주노조진영의 사회개혁투쟁을 수수방관만 하고 있지는 않았다. 자본과 정권은 민주노총(준)의 사회개혁투쟁은 기존의 임금인상투쟁의 영역을 벗어나서 민주노조진영이 정치투쟁을 전개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이를 제압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평가를 내렸다. 또, 사회개혁과 관련한 제도개선을 노사가 합의하면 이후에 노조의 교섭 요구가 경영, 인사권 등 전반적으로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이를 차단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계산도 작용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통신 노조 농성장인 명동성당과 조계사에 공권력을 투입한 지난 6월 6일 대검 공안부(안강민 검사장)는 사회개혁 요구는 “명백히 정치적 투쟁 항목에 해당

되므로 이와 관련된 쟁의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간주,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제도 언론들은 한결같이 노동조합의 사회개혁요구를 정치투쟁으로 몰아붙이며 공안정국을 만들어 내었다.

이에 기아자동차노조가 8일 조합원총회에서 사회개혁 요구안이 삭제되자 정부와 자본은 마치 민주노총(준)의 사회개혁 요구가 단위 현장의 조합원으로부터 거부되고 있는 양, 대대적 공세를 펼쳤으며, 특히 노사 공동체원에 합의한 서해공업도 제도개선 요구를 삭제한 것인 양 거짓 보도를 일삼았다. 그러나 정부가 교섭 대상에서 삭제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한 서해공업도 노사 공동체의 정부에 법개정 청원을 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정부가 정치투쟁이라면서 불법 운운한 6월 6일의 발표 후인 6월 8일 오전, 경희대병원 노사도 의료보험제도와 지정진료제 등의 사회개혁 요구를 합의, 가조인하였다. 그리고 지방공사의료원 등에서도 현재 교섭이 진행 중이며 상당수의 노사가 사회개혁에 대한 합의를 추진 중인 상황이다. 기아자동차노조의 경우 조합원들이 결정한 것은 사회개혁을 거부한 것이 아니고 임·단투 교섭에서 사용자에게 제기하는 방식을 하지 말자는 것뿐이다. 그리고 이 글을 쓰고 있는 7월 5일 현재 쌍용자동차 노조는 사회개혁 요구를 내걸고 파업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정부와 자본의 공세에 맞서 민주노총(준)은 ① 지자체 선거시 사회개혁과제가 공약과 쟁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② 하반기 정기국회시에 사회개혁 투쟁을 대중투쟁으로 본격화하고 ③ 교섭으로 타결할 의지가 없는 사측에 대해서는 민주노총(준) 차원에서 사회개혁을 거부하는 세력으로 지명하고 이들에 대해서 민주노총(준) 차원의 대응을 한다는 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의료보험 개정을 요구한 노조들은 신문광고를 내기도 하였다.

### 3. 사회개혁투쟁 중간평가

아직 전체 임단투가 마무리된 것은 아니지만 올해의 사회개혁투쟁은 처음 제기된 것에 비해 많은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으며 아쉬움과 한계가 드러나기도 하였다고 보여진다. 이에 민주노총(준) 차원의 공식 평가는 아니지만 개인적인 감상을 담은 중간평가를 해보기로 한다.

올해 사회개혁투쟁의 가장 큰 성과는 민주노조진영이 사회개혁투쟁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자신의 중요한 과제로 자각하고 투쟁을 전개했다는 점이라고 보여진다. 우선 전체 교섭노조 699개 중 104개 노조가 사용자에게 한 가지 이상의 제도개선 요구를 제시

함으로써 조합원에게 많은 교육과 홍보, 교섭과정에서의 쟁점화, 나아가 언론의 초점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들은 사회개혁 요구를 자신의 주요한 요구로 자각하고 자신의 요구로 투쟁을 전개하였다. 특히 과거 사회개혁투쟁이 사무전문직 노조가 중심이 되어 전개되었던 데 비해 올해의 사회개혁투쟁은 민주노총(준)이 주도하면서 자동차, 금속, 현총련 등으로 확대되고 사회적 여론의 초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이후 하반기 대중투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하겠다.

단적인 예로 교섭이 계속 결렬되자 조합원총회에서 임단투 교섭에서 삭제하기로 한 기아자동차 노조의 경우를 들어보자.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은 95년 임투를 준비하면서 임금인상과 함께 사회개혁요구를 조합원들에게 꾸준히 홍보함으로써 거의 전 조합원들이 이에 적극적 동의를 표시하였다. 그것은 매년 일정한 임금이 오르지만 물가와 세금은 더 뛰고, 자녀 교육과 의료혜택 등 사회보장이 뒤따르지 않아, 결국 생활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았음을 깨달아 온 결과였다. 또한 그것은 국민의 절박한 사회개혁요구를 노동자가 앞장서 대변하지 않은 채 임금인상만을 요구하다가 소위 '집단 이기주의'로 폐도되는 현실을 타파하고자 한 의지의 표현이었다. 더구나 조합원총회에서 부결된 것 보다는 사회개혁 요구를 교섭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합법적인 쟁의조차도 불법으로 몰아가는 정부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임금요구와 결합한 사회개혁요구 실현을 위해 대의원대회에서 62.7% 찬성으로 쟁의발생을 결의하고, 총회에서 50%에 가까운 조합원들이 사측에 계속 사회개혁 요구를 제기하기로 한 것에 주목하여야 한다. 따라서 기아자동차 노동자들은 사회개혁요구가 이후 하반기에 본격화될 사회개혁, 제도개선, 법개정 운동 등에서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올해 사회개혁투쟁은 민주노총(준) 공동대표인 권용목 동지가 표현한 “국민과 함께 하는 노동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노동조합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국적 조직화와 더불어 전국적, 정치적, 정책적 사안을 가지고 투쟁을 전개해 나갈 계기를 이루었다고 하겠다.

이와 아울러 상당수의 노조들이 제도개선 요구에 있어서 합의를 이끌어 내고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도 지적되어야 한다. 병원노련 산하의 서울지역 중소병원, 인천·부천지역본부는 의료보험, 고용 안정, 지정진료제도의 개선에 대해서 노사 합의를 이끌어 냈으며 서해공업은 노사 공동청원을 합의하였다. 노동조합의 이러한 공세로 정부도 의료보험법의 경우 의료보험 적용 기간을 기존의 180일에서 더 늘리는 등 보험 적용을 점진적으로나마 확대해 갈 계획을 발표하는 등 실질적인 법개정의 효과도 이루었다.

사회개혁투쟁은 또한 조합원의 의식을 강화하고 정치의식을 높이는 성과도 거두었다. 임금인상 등 노동조건의 개선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 정치, 사회제도가 개선

되지 않으면 노동자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사회개혁 요구를 교육, 홍보하는 과정에서 많은 조합원들이 자각하게 되었다. 이러한 의식의 발전은 무엇보다도 귀중한 성과로 이후 민주노총이 정치활동과 사회개혁을 이루어 내는데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보여진다.

이러한 성과와 더불어 전체 과정에서 한계와 시행착오도 적지 않았다고 보여진다. 우선적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처음으로 사회개혁투쟁을 전개하다 보니 제대로 조직적 준비가 미흡하였으며, 전체적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요구안의 준비와 정식화, 요구안의 선정 등에서 어려움이 있었으며 이후 조합원에 대한 교육,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2월에야 요구안이 확정되는 등 전체 결정이 늦은데다, 이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주요인이다. 한편으로는 결정된 방침을 자신의 요구로 수용하고, 이를 실천하는 하부 조직들의 집행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안이한 부분도 있었다고 보여진다.

둘째로, 요구안과 관련해서는 이태리의 사례에서 보듯이 현장의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요구를 발전시켜 나가는 방식을 취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다. 물론 올해의 투쟁은 처음으로 제기됨으로써 상충에서 준비하고 이를 확산시키는 방식을 채택하였으나, 앞으로는 현장의 요구를 수렴하고 조합원 자신의 요구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 단위 현장의 요구와 더불어 민주노총(준) 차원에서 전개되는 캠페인이나 전국적 여론화, 조직화를 제대로 이루어 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는 민주노총(준) 차원에서 진행한 몇 차례의 사회개혁 선전전이 대중적으로 전개되지 못하고 불과 수십 명 수준에서 각 지역별로 전개된 데서도 잘 드러난다. 이는 산업, 지역, 그룹들의 중간 조직들이 사회개혁투쟁과 관련된 사업들을 제대로 전개하지 못하고 기존의 임단투 중심의 관성에 머무른 점, 민주노총(준)의 조직 관장력의 취약 등에서 비롯된다고 보여지며, 하반기 투쟁을 위해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하반기의 사회개혁투쟁에서는 대국민 선전전, 조합원 서명운동, 신문광고, 집회 및 시위 등 다양한 방법들이 개발되어 사회개혁 투쟁이 전면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올해의 사회개혁투쟁은 처음으로 제기한 투쟁으로서 몇 가지 한계들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하고 민주노총 시대를 열어 가는 모습을 보였다고 판단된다. 앞으로 건설될 민주노총은 올해 사회개혁투쟁의 한계와 문제점을 보완하고 성과를 계승하여 보다 진전된 투쟁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